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본  
인간의 심리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 소 과

정 서 주

#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본 인간의 심리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장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 소 과

정 서 주

# 인 준 서

정서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은 기술과 문명 속에서 냉정한 세계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인간 스스로의 재구성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현대인은 사회 속에서 본인의 위치, 심리적 부담, 내면의 상처 등이 쌓이면서 분열된 자아를 경험한다. 현실 속 인간이 느끼는 삶의 좌절 또한 정신적 구조를 무너뜨리며 변형적 내재화 과정을 겪게 된다. 현대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이중적 자아와 삶의 양식을 고찰함으로 오늘날의 인간상을 예술로 재형성하고자 한다.

인간 내면의 대한 고찰은 일상에서 형성된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본인의 경험과 일상적 사물에서 오는 다양한 상상력에 사진이미지의 도입과 그것들의 중첩을 통해 의미가 덧붙여져 예술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사진이라는 현실적 공간을 표현하는 도구를 사용해 반대의 가상의 공간을 표현하여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심적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미지의 중첩은 투명과 불투명의 조합을 통해 현실과 작가적 상상력이 더하여 가상의 공간이 주는 예술적 의미를 고민하였다. 현대인의 모습에서 모순된 자아의 이면적 모습을 작품의 이미지로 삼았다. 인간이 가진 심리적 불안을 시초로 분열된 인간상을 알아보고, 이미지의 중첩이라는 기법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서술하였다.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과 작품의 조형적 특성 및 작품에 대한 설

명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세계를 서술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 서 론 .....	1
II .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4
1) 이미지의 중첩 .....	4
2) 사진이미지를 통한 표현 .....	7
3. 작품분석 .....	9
III . 결 론 .....	34

## 참고문헌

## ABSTRACT

# I . 서 론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 속도와 광범위한 영역의 변화, 사이버 공간의 확장 등으로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로 바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인격 형성을 주축으로 자기도취, 독단적, 이기주의 등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불안정한 본인의 위치, 심리적 부담, 내면의 상처 등이 쌓이면서 심리적 불안이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을 형성한다.

고민하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외면과 내면이 불일치된 자기 모순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성향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본인은 현대인의 이면적 모습을 작품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삼아 현대인이 가진 심리적 불안을 상상력의 시초로 분열된 인간상을 알아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과 그에 따른 결과물을 되짚어 봄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내면의 상처와 방어적 모습들은 무엇인지에 고찰하였다. 현대인의 극단적 삶의 형태를 각각의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조합하여 연결시킴으로 새로운 의미의 부여와 감정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 이미지의 형성은 일상의 재현이 아니라 조형적 요소들의 재배치를 통하여 표현한 조형작품이다. 하나의 사물과 행위를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배치되는 각각의 이미지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미지의 중첩은 분리된 두 개의 사건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각

각 이미지의 이중성을 통해 현대의 차가운 질서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인간의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작품의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본 분열된 현대인을 돌아보고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 Ⅱ .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Rollo may<sup>1)</sup>는 불행의 조건은 텅 빈 느낌과 고독 그리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 상실이라고 말한바 있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해 고독감과 더 나아가 극심한 자기 존재의 무의미로 불안과 본연의 가치를 잃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구성원의 일부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발전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그 사회 속 구성원의 좌절과 심리적 불안감은 현대문명 속의 일그러진 존재로 분열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사회의 기계적이고 조직화된 사회구조는 인간의 주체적 지배를 벗어나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내면적 공허와 방황을 일삼고 병폐와 부작용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현대인의 분열된 인간상을 바탕으로 예술표현의 소재로 삼았다.

예술은 삶의 표현이자 예술가의 상상력은 그로부터 시작된다. 일상생활로부

---

1) Rollo may는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사로 그의 철학은 실존주의적 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샌 프랜시스코의 Saybrook Graduate School and Research Center의 설립자로 실존주의 지식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었다.

터 분리되어 나온 작가의 상상력은 본인의 작품에서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나타난다.

도시의 생활 속에 있는 행위나 사물로부터 발상이 시작되며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진다. 실제의 이미지에 가상의 현실이 부여됨으로 현실의 것이 아닌 새로운 작품으로서 재발견되는 것이다. 평소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일상의 것들은 작가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로 압축되면서 상호적 변형을 이룬다.

도시의 익명성을 요구하는 현대의 단절된 부분을 하나의 이미지의 모티브로 삼고 차가운 질서 이면의 충동이 예기치 않은 운동을 생성한다. 각각의 다른 시간과 공간의 응축으로 동적인 하나가 되는 것이다.

중첩은 대상의 개별적인 것과 동시에 대상을 통합하기도 한다. 형태의 중첩을 통한 조형성의 표현과 동시에 각각의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의 중첩은 실존과 가상을 통하여 표현의 깊이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인의 심리의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여겼으며 인간의 다양한 내적 표현을 다른 화면 구성의 겹침 효과로 인간의 대립적 괴리를 조형 예술을 통해 묻고자 한다.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 이미지의 중첩

이미지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으로 심리학적 의미를 지닌다. 일상의 사물과 행위들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소재의 제공으

로 예술적 창조를 만든다.

작가가 경험한 것들은 창작의 원동력으로 내적인 의미의 부가로 예술로 승화시킬 때 하나의 이미지가 탄생되는 것이다. 또한 접하는 이미지의 작가적 견해의 재구성을 통해 변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적인 것이 정련 과정을 거쳐 미적으로 형상화되어 밖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어떤 근본 형태를 지닐 것이다. 미적 표현에 있어 형태는 객관적인 현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인 내부의 반응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예술에서의 표현은 작가 개인의 내적 생명, 혼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정서표출에서 나오며 범주화 된다.<sup>2)</sup>

본인의 작품에서 중첩은 변화를 창출해내는 방편중의 하나로 하나의 투명한 이미지와 다른 하나의 불투명한 이미지의 겹침으로 시작된다. 현실적 이미지와 가상의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진 평면적 이미지가 공간을 두고 결합된다. 여러 형상들의 중첩에 의해 만들어낸 것은 2차원적 평면에서 벗어나 3차원적 공간을 형성한다. 중첩은 화면 속 공간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새로운 세계의 형성을 돕는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중첩된 이미지는 새로운 하나의 공간적 차원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작품에서 투명한 이미지의 시트는 상상의 세계로 영역의 확장을 시도한다. 불투명한 시트가 정확성과 명료성을 이야기한다면 투명한 시트는 그 위에 겹쳐지는 이중 구조를 통해 애매모호한 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투명한 시트와 교차되는 부분은 재료의 겹침으로 실제와 가상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변형된 새로운 하나의 형태는 기존의 행위 또는 사물에서 벗어나 고정될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

---

2) 예술에 대한 사색, 김광명, 학연문화사, 2006, p32

직임을 제공한다.

독립 가능한 대상들이 서로 이중구조를 지닌 대상으로 나타남으로 각각의 대상의 의미가 서로 혼합되거나 겹쳐지게 됨으로써 하나의 시각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중첩은 표현 요소들이 겹쳐지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깊이감, 공간감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또한 투명과 불투명의 중첩은 투시되는 효과로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중첩된 형태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였다.

객관적 시간의 공간이 가상의 시간의 공간과 결합이 되면서 전자는 부정된다. 객관적 시간의 공간이 의미하는 것을 이질적인 것과의 중첩을 통해 불가능한 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뒤따르는 것이다.

작품 속 이미지는 하나의 투명한 시트지가 또 다른 시트지의 이미지와 섞여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처럼 압축시키는 효과를 준다. 도시적 삶 속의 극단적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실의 장과 가상의 관계를 겹쳐 놓음으로 사색을 일으키는 공간이 되어준다.

작품 속 두 개 또는 세 개의 이미지는 두 개의 시간, 공간적 차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의미를 응축시키고 새롭게 정의되는 하나의 시간적 단일점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투명한 시트지와 다른 하나의 불투명한 시트지는 각각이 가진 현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파장의 사고적 변화를 함축함으로 몽상적 공간으로의 유입을 시도한다.

시각과 기억,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작품들은 공간적 중첩인 플라주와 시간적 중첩인 영화의 미학을 깔고 있다. 3) 공간내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예정된

---

3) 이선영, <도록서문 中>, 2011

인과 고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단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중첩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를 연구하는 기반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중첩이 주는 공간감과 깊이감의 조형적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작품의 재해석과 변화를 창출해내고자 하였다.

## 2) 사진 이미지를 통한 표현

본인의 작품에서 이미지는 존재하는 현실의 공간과 그 공간 속에 감지되는 작가적 상상력의 공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예술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사진은 현실을 통해서 생성되는 사실적인 매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작가의 주관적 의식을 현실이라는 실제적 감정의 교류의 매개체로 사진을 활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심리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상적 또는 작가가 생각하는 가상의 공간의 사진을 찍는 데서 시작되며 그에 대한 확충된 상상력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압축을 시도한다.

사진 속 이미지들은 자아로부터 분열된 분신의 이미지 또는 도시적 사물의 표현에서 나와 실제의 연관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본인이 생활하는 도시적 공간의 산유물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두고 대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사진이 주는 사실적 의미는 사진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탄생을 한다.

그것은 사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며, 더 나아가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의 혼돈을 의미한다. 또한 사진 속의 다른 시공간의 만남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적인 충돌으로 의문을 제공하게 만든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진은 투명과 불투명이라는 현대적 소재의 재탄생으로 이미지의 배치에 중점을 두고 대조적 시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으로서의 변이를 보여주는 형상이 된다. 여기에서 사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닌 연속된 현재와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을 서로 비추고 시각적 요소에 집중하게 만든다.

실제의 공간과 허상의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도는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사회의 산유물의 하나인 사진은 작품의 전체적인 도시적 분열된 자아를 표현하기에 부합된다. 사진 이미지가 작가의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 되어 중첩이라는 시각적 효과의 부여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의 제공이 되는 것이다.

### 3. 작품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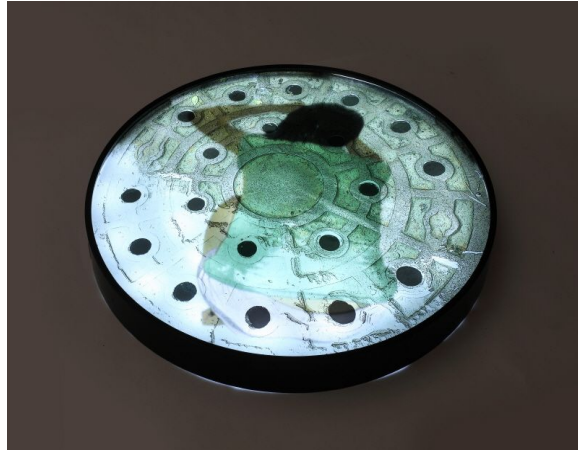
【작품 1】 맨홀, acrylic, steel, L.E.D, 가변설치, 2011



【작품 1-1】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2】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3】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4】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5】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6】 맨홀, acrylic, steel, L.E.D, 1000x1000x70(mm), 2011

【작품 1, 1-1, 1-2, 1-3, 1-4, 1-5, 1-6】 맨홀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 가변설치

【작품 1-1】 1000x1000x70(mm)

【작품 1-2】 1000x1000x70(mm)

【작품 1-3】 1000x1000x70(mm)

【작품 1-4】 1000x1000x70(mm)

【작품 1-5】 1000x1000x70(mm)

【작품 1-6】 1000x1000x70(mm)

재 료 : acrylic, steel, L.E.D

### 제작방법

【작품 1】은 acrylic, steel, L.E.D의 재료의 접합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각의 이미지를 컴퓨터 실사 출력을 한다. 맨홀로 이루어진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용접할 부분을 고려하여 여분을 남기고 재단한다.

아크릴 판에서 용접할 부분을 고려하여 여분을 남기고 재단한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지름 1000(mm)의 원의 레이저 커팅된 아크릴 판에 비눗물을 분사하여 접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의 아크릴 판과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 아크릴 판 사이에 60(mm) 공간감 주고 임의로 고정한다.

지름 1000(mm)에 밴딩 된 철에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의 아크릴 판을 먼저 넣고 뒷 부분에서 'ㄱ'자 형태로 여러 곳을 용접한다. 60(mm) 공간을 주고 무광 일반 시트지의 아크릴 판을 용접으로 고정한다.

L.E.D조명을 지름 1000(mm)의 판에 접착 스티커를 이용해 빛이 골고루 퍼지도록 접착한다. L.E.D조명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본 작품에 등장하는 맨홀은 도시의 상징이자 평소에 존재감 없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맨홀은 땅 속으로 통하는 유일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소통의 기회이자 반면 어두운 구멍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작품 1-1】은 인간의 내재된 공격성의 일부로 맨홀이라는 공간을 두려움의 대상이자 그 속에 빠져있는 분열된 자아를 발견하는 도구가 된 것이다. 자기대상의 전이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동기가 되어 충족과 방어적인 이유가 합해져 분열의 산물이 탄생한 것이다. 본능적이고 생물학적 공격 충동이 도시의 탐욕과 충동에 휩싸여 충이라는 죽음본능의 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적 상황 속에서 충은 쏘다는 의미에서 도시적 삶이 가지는 극단의 고독과 육체적 위험을 방어해 준다. 하지만 본인이 분열된 자아에게 서로 겨누는 형태는 자아에 대한 소유와 지배라는 의미에서 현대인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작품 1-2】, 【작품 1-3】 또한 맨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맨홀 손을 넣고 있는 사람과 전쟁이라도 난 듯 엮드려 있는 사람 또한 두 개의 사건을 추리해야만 할 수 있다. 하나의 현실적 인지와 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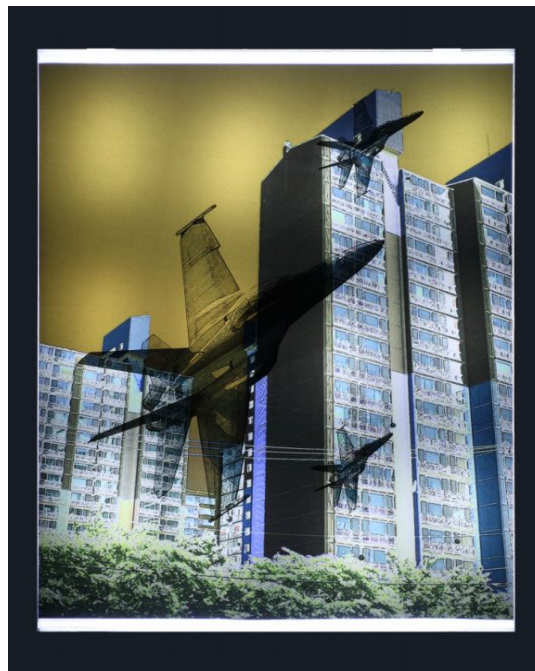
응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연극적 장면은 서로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작품 1-4】, 【작품 1-5】, 【작품 1-6】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원초적 환경에 대한 욕구와 바깥세상과의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꿈꾼다. 분열된 과대한 자기애는 다른 세계에 대한 욕망과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이 단절과 소외된 현대사회의 인간상에서 복잡한 심리와 복잡한 인간을 보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시점을 제공한다. 타인과의 소통보다 나 자신과 싸우는 분열된 자아의 단편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표현되었다. 하나의 투명한 단면은 맨홀이라는 도시적 산물의 매개체로 다른 하나의 각각의 이미지는 그로부터 오는 공격과 평화의 반대되는 형상이다.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맨홀과 심적인 부분의 매개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들로 본인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작품 2】 target, acrylic, L.E.D, 500x500x70(mm), 2011



【작품 3】 비행, acrylic, L.E.D, 390x500x70(mm), 2011

【작품 2】 target

【작품 3】 비행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2】 500x500x70(mm)

【작품 3】 390x50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1-1】 과 마찬가지로 먼저 각각의 이미지를 컴퓨터 실사 출력을 한다. 한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아크릴 판에 각각 접착한 뒤 10(mm) 공간감을 주고 아크릴 막대로 아크릴 접착제로 고정한다.

라이트 박스를 흰색 불투명 아크릴 판을 재단하여 앞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다. 폭 70(mm)의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조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아크릴 경첩을 위에 단다. 자석으로 속을 고정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아파트의 한 쪽 편에서 총을 겨누고 분열된 자아의 표상이 반대 편에서 자신을 향해 다시 총을 겨누는 형상이다. 이는 【작품 1-1】의 나르시시즘의 내재된 성향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지닌다.

총은 가상과 현실의 두 면에서 자신의 보호 수단이자 위협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공간이 하나의 장면처럼 겹쳐지면서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는 효과를 지닌다.

분화된 자아의 덩어리는 지배적 파트너 관계로 정복과 공격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이며 다소 충동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환상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을 이야기 한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파괴적 성향 또한 총과 마찬가지로이다. 9.11 테러의 무너진 건물더미는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적 자아 이탈의 현대 사회의 조직 내 팽배해진 권력 관계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 수치를 알려주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총을 든 사람과 반대편의 총을 든 자아의 분신의 이미지의 중첩과 고층 아파트와 비행기라는 수단의 충동은 각각의 이미지가 주는 부분은 중첩이라는 과정을 통해 강렬한 위협으로 재탄생 된 것이다.



【작품 4】 game, acrylic, L.E.D, 300X300X70(mm), 2011



【작품 5】 터널, acrylic, L.E.D, 530x370x70(mm), 2011

【작품 4】 game

【작품 5】 터널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4】 300x300x70(mm)

【작품 5】 530x37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총의 몰입을 요구하는 게임의 산물로 게임에서 이긴 하나의 현실과 그 게임 속의 승리자가 본인임을 이야기하는 가상의 다른 공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되었다. 게임적 환상의 공간은 우리의 욕구를 풀기에 적합하다 여기며 감춰진 심상을 표출하기에 현대적 허구적 환상의 공간이라 하겠다. 게임 속에서는 자기애적 분노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날릴 수 있으며 몇 배로 강한 허상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만들어 낸 컴퓨터 속 아바타는 본인을 대신해 건강하지

못한 욕구를 해소한다.

인간은 균형을 잃은 권력관계에서는 잠재적 변화의 양상의 결과로 그 존재를 이기고 싶어 한다. 게임에서 상대방을 제거하듯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의논해 본다.

과대화 된 인간의 형상이라는 불투명한 이미지에 자동차라는 투명한 이미지의 조합은 작가에 의해 터널이라는 새로운 탄생을 부여했다. 콧구멍 속으로 드나드는 자동차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과대한 심리적 망상으로 가상의 공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작품6】 택배, acrylic, L.E.D, 500x400x70(mm), 2011



【작품 7】 camera, acrylic, L.E.D, 350x270x70(mm), 2011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6】 500x400x70(mm)

【작품 7】 350x27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택배는 현대인의 편리한 일상의 대표적 산물이다. 택배 속 배달 된 물건은 분열된 자아들로 일상 속 자아 안에서 분열된 자의식을 나타낸다.

택배라는 일상적 행위 속에 각각의 다른 분열적 자아를 선물 받음으로 자아 안에 남아 있는 경험들로부터 혼돈의 상태가 된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에서 벗어나 각각의 다른 색을 지닌 자아를 가진 것이다.

카메라는 총이라는 도구와 마찬가지로 현대화 된 도구이다. 작품 속 카메라는 소유와 지배 속에 갇혀있다. 카메라 속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본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현실의 다른 두 상황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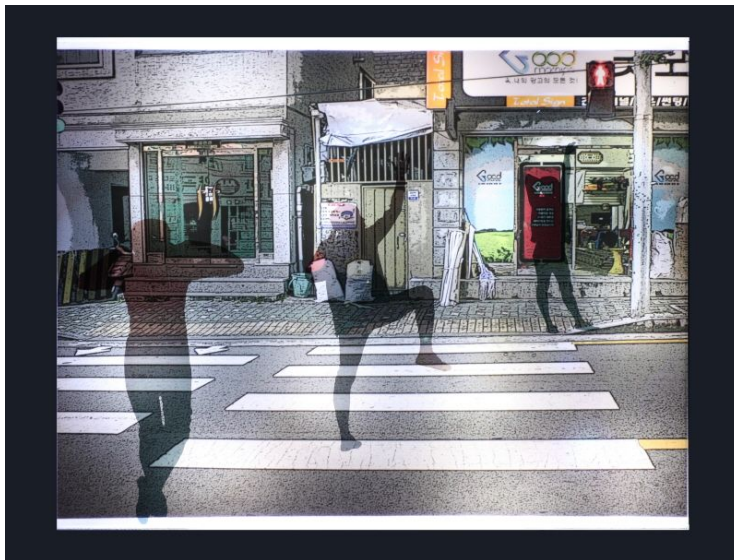
다.

카메라 속에 들어간 자아는 외부세계로부터의 자극에서 벗어나고자 소극화된 상태이다. 카메라는 필름에 피사체를 기록하는 도구이지만 본 작품에서 카메라는 자아를 단절시키는 망상적 도구이다.

보다 작은 다른 영역의 자아는 감정이 없는 물체로서의 기능을 지니면서 공감능력을 쇠신하고 있다. 변형된 자아는 어린 아이의 마술적 상황으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만 절대 순수하지 않은 기계적 인간의 성향을 대신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 8】 지식의 무게, acrylic, L.E.D, 940x480x70(mm), 2011



【작품 9】 dance time, acrylic, L.E.D, 520x430x70(mm), 2011

【작품 8】 지식의 무게

【작품 9】 dance time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8】 940x480x70(mm)

【작품 9】 520x43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을 한다. 【작품 8】은 다른 3개의 아크릴판을 나열하고 【작품 9】은 한 면은 투명한 접착 시트지를 이용하여 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밑에 이미지는 일반 무광 접착 시트지를 이용한다.

무광 투명 접착 시트지와 무광 일반 접착 시트지를 아크릴 판에 각각 접착한 뒤 10(mm) 공간감을 주고 아크릴 막대로 아크릴 접착제로 고정한다.

라이트 박스를 흰색 불투명 아크릴 판을 재단하여 앞의 크기에 맞게 재단한다. 폭 70(mm)의 직사각형 박스를 만들고 조명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아크릴 경첩을 위에 단다. 자석으로 속을 고정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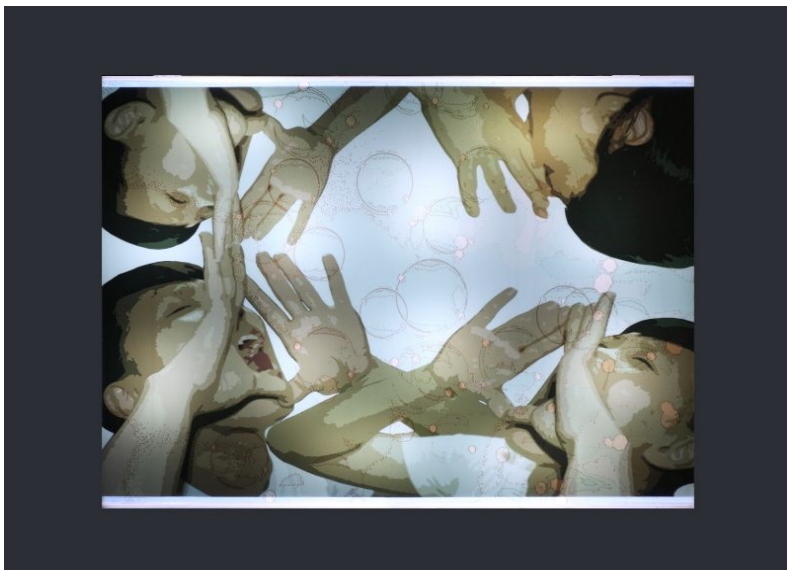
전공 서적을 실고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부는 도시에서의 경험과 실망으로부터의 해소를 갈망하고 있다. 현실적 모습과 한계들로 이상화 된 초자아는 긍정적인 형태로 전공서적들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으로서 빠르고 편리함을 주지만 죽음과 같은 치명적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오토바이는 이상화된 초자아의 행위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신호등에서 빨간 불에 춤을 추며 가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와 빨간 신호등의 횡단보도는 행동주의적인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도구이자, 쾌락을 위한 도구이가 되기도 한다.

전공서적의 사라짐과 댄서들의 배치는 현대인의 부정적 현상들의 이야기를 심각하지 않게 관객과의 공감적 상호관계로 인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작품 10】 Fly, acrylic, L.E.D, 500x470x70(mm), 2011



【작품 11】 shout, acrylic, L.E.D, 530x370x70(mm), 2011



【작품 12】 look down, acrylic, L.E.D, 500x370x70(mm), 2011

【작품 10】 Fly

【작품 11】 shout

【작품 12】 look down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0】 500x470x70(mm)

【작품 11】 530x370x70(mm)

【작품 12】 500x37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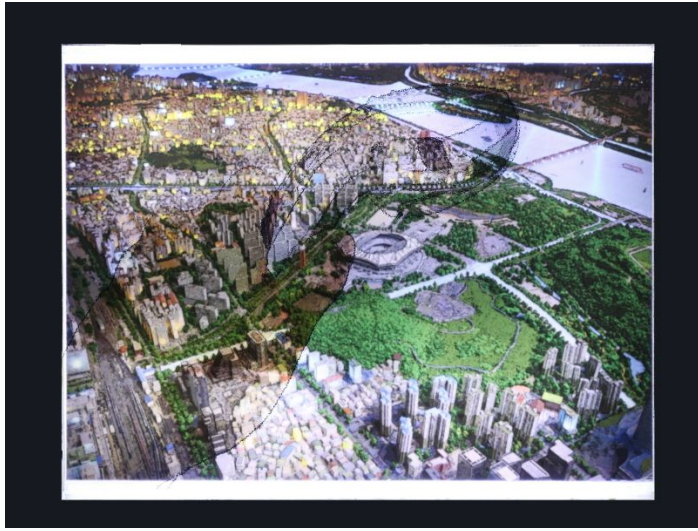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작품 2】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 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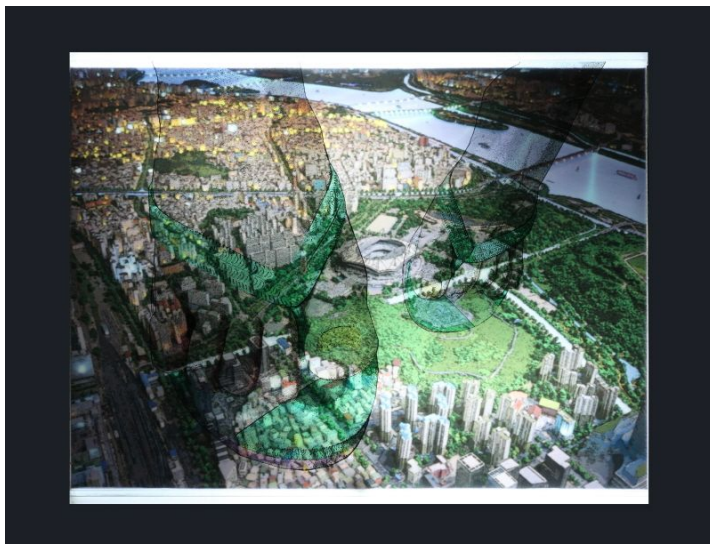
도시에서 각각의 개인들을 연결시키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유통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도시에서의 단절된 상황은 대화의 부족, 불안한 심리는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낳고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더욱더 많은 경계를 낳는다.

이러한 고립된 상태는 더욱더 강한 애착과 두려움으로 부터의 방어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해소를 갈망하는 행위는 상실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전이 형상이다.

【작품 10】은 날개를 가진 자아를 날아가지 못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은 가상의 공간에서 가지는 이중적 자아분열이다. 현대 사회의 고독과 소외의 일부분을 인물과 가상의 인물의 배합으로 보듬아 주고 있다. 【작품 12】는 이러한 현대인의 최고 결말인 셈이다. 벼랑 끝에 선 발 아래 아가리를 벌리고 집어삼키려는 식인 물고기는 자아 파괴와 괴리감으로 인한 위기이다.



【작품 13】 city1, acrylic, L.E.D, 370x290x70(mm), 2011



【작품 14】 city2, acrylic, L.E.D, 370x290x70(mm), 2011

【작품 13】 city1

【작품 14】 city2

연 도 : 2011년

크 기 :

【작품 13】 370x290x70(mm)

【작품 14】 370x290x70(mm)

재 료 : acrylic, L.E.D

### 제작방법

본 작품은 acrylic과 L.E.D로 위의 작품들과 같은 방법으로 시트지의 제작과 라이트 박스를 제작하고 직사각형 박스 안에 L.E.D 조형을 골고루 접착시킨 후 안전기에 전기를 연결하고 작품을 설치한다.

### 작품설명

위의 작품은 같은 도시라는 사진에 슬리퍼를 신은 신발과 샤워기를 든 손의 중첩된 배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도시는 야경을 뿜내며 편안한 분위기이나 그 위에 배치된 투명한 시트로 인해 위협적인 가상의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해진 인체의 발과 손은 아름답지만 심리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 속 현실의 공간이 작가의 의도로 인해 제3의 공간으로 의

미를 부여받은 것이다. 분열된 자아가 대신해 주는 행위는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중첩된 이미지로 기대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배반하고 있다. 변화하는 움직임의 공간으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상상의 표현이며 거대한 자아적 환상은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의문을 제공한다.

### Ⅲ . 결 론

현대사회의 기술과 문명은 인간 생활에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는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되지 못했다. 인간의 육체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끼지만 인간의 정신적 행복감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 오늘날의 단절되고 소외된 인간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기는 어렵다.

특히, 도시적 공간 속의 익명성은 존재감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었으며 차가운 내면의 정신적 고충을 안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적 공간의 존재하는 한 명으로 도시의 일상적 산물로부터 생각의 시초를 삼아 그에 따른 행위와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작가적 상상력을 부여했다.

현실의 공간의 사물 또는 행위와 그로부터 유추해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이 이미지의 중첩이라는 기법을 통해 서로 충돌하면서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상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이미지의 중첩을 통해 극과 극의 이미지의 결합은 새로운 제3의 공간의 탄생을 시도되었고, 더 나아가 평면의 입체를 시도하였다.

투명한 시트지와 교차되는 부분은 재료의 겹침으로 실제와 가상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적 공간이 되기도 하며 변형된 새로운 하나의 형태는 기존의 행위 또는 사물에서 벗어나 고정될 수 없는 새로운 움직임を提供한다.

독립 가능한 대상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나타나 각각의 대상의 의미가 서로 혼합되거나 겹쳐지게 됨으로써 깊이감, 공간감의 특성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또한 실제적 감정의 교류의 매개체로 사진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확충된 상상력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압축을 시도했다.

작품 제작 과정 중 본인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식과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 새로운 대상의 발견과 이러한 것을 조형화 하는데 있어 보다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작품 전개를 하는데 있어 대상을 보다 깊이 연구하여 몰입된 상태의 보다 넓은 상상력과 시각화의 기능을 개발, 발전해야 하겠다.

더 넓은 공감대를 관람자로 하여금 같이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의 과제라 여기며 인간 존재에 대한 재인식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 책 세상, 2007
-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샌디 호치키스, 교양인, 2006
- 도시 심리학, 하지현, 해냄출판사, 2009
- 미술과 시지각, 루돌프 아른하임, 미진사, 1995
- 시각예술에서의 이미지란 무엇인가, 박래경, 눈빛, 2003
- 예술에 대한 사색, 김광명, 학연문화사, 2006
- 진중권의 이매진, 진중권, 씨네21, 2008
- 진중권의 현대미학 강의, 진중권, 아트북스, 2003
- 현대인의 심리, 임창재, 형설출판사, 2005
- 현대인의 행동과 심리, 김옥진, 김형수, 민지사, 2006

# ABSTRACT

## A Study on Humane Psychological Expressions through Image Overlapping

-focusing on the author's works-

Jung, Suh Joo  
Dept. of Plastic Art  
Graduated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en leading their busy life come to think and act for their experiences in a dispassionate world and thereby reconfiguration for themselves in technologies and civilization. The moderns experience their divided -self as their position, psychological burden, and inner wounded heart are complexively combined. The breakdown of life that men feel in the real world also tear down their psychological structure, and they go through the transmutation internaliz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eform today's humane image through arts by reviewing humane divided-self and life-from as a member of the modern society.

The review on human mind started from an image formed in daily life. This study tried to express arts through meaning by introducing photo imaginations to various imaginations coming from the author's experiences and stuffs in his life and overlapping them. In addition, this study made an attempt to express the opposite virtual space using a tool to express the realistic space and thus used the image as another tool to express the psychological state.

For the mage overlapping, the author was in agony to find out the artistic meaning acquired by the virtual space as the reality and the author's imagination are add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transparency and opacity. In this study, their bifocal look of contradict - self in the look of the moderns was selected as an image of the work. An attempt was made to see the divided human image based on humane psychological uneasiness in the beginning and to describe it by adding the author's imagination through image overlapping.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In Chapter I Introduction, this chapter described the purpose and method for studying the author's work .

In Chapter II Discussion, this chapter reviewed the work' formed background, formative features, and details.

In Chapter III Conclusion, this chapter arrang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described the author's srt world.